

# ‘장단 19안타 대폭발’ KIA, 삼성전 워닝시리즈

### 주말 3차전 16-7 승...김태형, 4.1이닝 무자책 역투 김도영·한준수 투런포...박재현 6타수 5안타 몰아쳐

KIA 타이거즈가 장단 19안타를 몰아치며 삼성을 제압했다.

KIA는 17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삼성라이온즈와의 주말 3차전 경기에서 16-7로 승리했다. 이날 팀 타선은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상대 마운드를 무너트렸다.

김도영은 시즌 13호포를 폭발시켰고, 박재현은 6타수 5안타를 몰아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앞서 15일 5-4 승, 16일 2-5 패 기록했던 KIA는 이로써 삼성과의 주말 3연전을 워닝시리즈로 마감했다. 그 결과 21승 1무 21패로 5할 승률을 회복했다.

이날 KIA는 박재현(좌익수)-박상준(1루수)-김도영(3루수)-아테를린(지명타자)-나성범(우익수)-김호령(중견수)-김규성(2루수)-김태군(포수)-박민(유격수) 순으로 타선을 짰다.

선발투수로는 김태형이 나섰다. 총 82개의 공을 던진 김태형은 4.1이닝 2피안타 4사구 2탈삼진 5실점(무자책)으로 역투했다.

KIA는 1회초부터 빅이닝을 만들었다. 선두타자 박재현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때려냈다. 그는 도루로 2루 베이스를

홈쳤다. 박상준은 볼넷으로 출루했다. 이후 2사 만루 타석에 오른 김호령이 내야안타를 기록하면서 박재현이 홈에 들어왔다. 후속타자 김규성은 좌전 2타점 적시타를 터트렸고, 경기는 3-0이 됐다.

1회말 김태형은 상대 선두타자를 땅볼로 처리했다. 이어 김성운을 땅볼, 최형우를 뜬공으로 잡아내면서 삼자범퇴 이닝에 성공했다.

2회초에는 추가점이 터졌다. 1사 상황 박재현이 중견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를 기록했다. 2사 2루에서는 김도영이 타석에 올라 상대 7구째 148km 직구를 걸어 올려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격차는 5-0으로 크게 벌어졌다.

김태형은 2회말 역시 3개로 세 타석 만에 이닝을 끝냈으나, 3회말 위기를 맞았다.

상대 선두타자 양우현은 3루수 포구 실책으로 내보냈다. 후속타자 박재현에게는 볼넷을 허용했다. 무사 1·2루에서는 장승현을 뜬공으로 처리한 뒤 류지혁까지 삼진으로 잡아냈다.

이어 김성운에게 1타점 적시타를 맞았지만, 최형우를 땅볼로 돌려세우면서 추가 실점을 막았다.

KIA는 4회초 다시 격차를 벌였다. 선두타자 김태군이 좌전 안타를 때려냈다. 이후 박민의 희생번트로 2루까지 진투했다.



17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삼성과의 경기에서 박재현(왼쪽)과 김도영이 뛰고 있다. 사진제공=KIA타이거즈

후속타자 박재현도 좌전 안타를 터트리면서 1사 1·3루 찬스가 만들어졌다. 타석을 이어받은 박상준은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1타점 적시타를 폭발시켰다. 또 김도영의 희생플라이로 박재현이 홈인, 7-1로 KIA가 6점 차 리드를 가져왔다.

4회말 김태형은 선두타자 구자욱에게

볼넷을 기록했다. 후속타자 3명은 모두 범타로 처리하면서 무실점 이닝을 만들었다.

5회말에는 상대의 빅이닝이 만들어졌다. 김태형은 상대 첫 타자 박재현을 유격수 포구 실책으로 내보냈다. 후속타자 장승현에게는 좌전 안타를 맞았다. 김상준을

삼구 삼진으로 잡아낸 뒤에는 김성운에게 볼넷을 기록했다. 1사 만루에서 최형우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한 김태형은 결국 마운드를 내려갔다.

KIA는 김태형 대신 김범수를 투입했다. 김범수는 구자욱을 삼진으로 잡아냈지만, 디아즈와 박승규를 연속 밀어내기 볼

넷으로 내보냈다.

마운드는 조상우로 교체됐다. 조상우는 김민호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았다. 박재현은 뜬공으로 돌려세우면서 추가 실점은 면했다. 경기는 7-6으로 좁혀졌다.

6회초에는 KIA가 대형 득점을 올렸다.

선두타자 박민의 2루타 이후 박재현이 1타점 적시타를 뽑아냈다. 1사 1·3루 아테를린타석에서는 상대 포투로 박재현이 홈에 들어왔고, 김도영은 2루까지 진투했다.

여기서 아테를린이 중견수 안타를 만들면서 김도영도 홈플레이트를 밟았다.

상대는 크게 흔들리며 위기를 자초했다. 나성범이 우전 안타를 뽑아냈고, 상대 우익수 포구 실책으로 아테를린이 홈에 들어왔다.

후속타자 김호령은 희생플라이를 기록했고, 나성범도 득점에 성공했다. 그 결과 경기는 다시 12-6으로 벌어졌다.

KIA는 7회와 8회 각각 1점을 추가한 뒤 9회 한준수의 썸기 투런포로 승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이후 9회말 1실점으로 이닝을 막으면서 16-7 승리를 확정 지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AI페퍼스 인수’ SOOP, 여자배구 새 주인 된다

### KOVO 가입 절차 돌입...광주 연고 유지 여부 주목 선수단 승계 전망...코치진·사무국 고용 여부는 미정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스 측은 AI페퍼스가 해체 위기를 넘겼다.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 SOOP이 AI페퍼스 인수에 나선 것. 인수가 최종 성사될 경우 여자프로배구는 기존 7구단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17일 배구계에 따르면 SOOP은 최근 한국배구연맹(KOVO)에 AI페퍼스 구단 인수 의사를 최종 전달했다. KOVO 역시 각 구단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곧 임시 이사회를 열어 SOOP의 회원 가입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인수 과정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가입비와 배구 발전기금 문제도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

졌다. 당초 KOVO는 신생 구단 수준의 가입비를 요구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총액 조율이 이뤄지며 점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구단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SOOP의 회원 가입이 확정되면 기존 AI페퍼스 선수단은 그대로 승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별도의 2차 드래프트 없이 새 구단 체제 아래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AI페퍼스가 해체될 경우 선수단 공중분해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SOOP의 인수 추진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반면 지난달 계약이 종료된 장소연

감독 등 코칭스태프와 사무국 직원들의 고용 승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AI페퍼스 측은 코치진 고용 승계를 SOOP에 적극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고지는 기존 광주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AI페퍼스와 광주시의 연고 협약은 최근 종료됐지만, SOOP이 가입 절차를 마치는 대로 협약 연장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연고지를 선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021년 여자부 7번째 구단으로 창단한 AI페퍼스는 최근 모기업 재정난으로 매각 절차를 밟아왔다. 2025-2026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였던 박정아와 이한비를 각각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로 보내는 사인 앤드 트레이드를 진행했고,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도 불참하는 등 사실상 팀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수영 3관왕에 오른 김하진(왼쪽 두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역도 3관왕에 오른 이순훈의 시상식에서 선수단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축하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장애인체육회

## 광주·전남선수단, 전국장애학생체전 ‘맹활약’

###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성료

### 광주, 금 13·은 19·동 16개...수영·육상 등 선전 전남, 금 28·은 20·동 35개...‘역대 최다’ 메달

장애인 체육 꿈나무들의 최대 종합 스포츠 축제인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지난 15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부산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광주·전남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활약했다.

이번 대회에 10개 종목 122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광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16개를 획득했다.

먼저 수영 김하진(광산중 3년)은 여자 S14 중등부에서 자유형 100m·200m와 접영 5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3관왕을 차지했다. 육상 이가은(광주선명학교 고 3년)와, 조정 강남준(대촌중양초 5년)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와 더불어 역도 중등 신영아(선영학교 고 2년)는 여자 -60kg급 지적(발달) 고등부 스쿼트 경기에서 67kg을 들어 올려 학생신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지난해 종목 종합 3위였던 광주 조정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종합 2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지난해 대회에서 총 46개(금 16·은 12·동 18)의 메달을 획득했던 광주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4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한층 더 높은 성적을 달성했다.

한상득 광주시에너지체육회 수석부회장은 “광주 장애학생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땀방울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결과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선수단 모두에게 깊은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면서 “앞으로도 광주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전남은 금메달 28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35개 등 총 8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역대 최다 기록이었던 2024년 제18회 대회(금 16·은 35·동 23)보다 9개 많은 성과다.

이번 대회에 역대 최다규모인 296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전남은 11개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쳤다.

역도와 육상 종목에서는 다관왕이 쏟아졌다. 역도 종목에 출전한 이순훈(강진덕수학교)은 지적 고등부 남자 +100kg급 스쿼트(176kg)와 데드리프트(196kg)에서 각각 1위에 올랐다. 이어 함께 372kg으로 대회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3관왕에 등극했다.

육상에서는 황다연(함평영화학교)이 지적 고등부 여자 800m, 1500m, 400m 릴레이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3관왕을 달성했다. 국사방(영암소림학교) 역시 3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육상 강유림(강진덕수학교), 육상 노연희·윤하민(영암영광학교), 수영 정우찬(여수양지초) 등이 각각 2관왕을 차지하며 전남 장애학생 체육의 미래를 밝혔다.

보치아 종목에서는 강재은(무안평탄중)이 보호차 이주희씨와 함께 3년 연속 대회에 참가해 은메달을 획득했고, 슬러트과 e스포츠 종목에서도 전남이 종합 2위를 기록하며 힘을 보탤다.

박정연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꿈과 열정이 역대 최다 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월드컵 태극전사 26명 확정’ 홍명보호, 북중미 출격

### 광주FC 출신 엄지성 등 합류...31일·6월 4일 두 차례 평가전

광주FC 출신 엄지성이 합류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무대에 나선다.

홍명보호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KT 온마당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태극전사 26인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에는 광주FC 출신 엄지성(스완지시티)을 포함해 주장 손흥민(LAFC),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뮌헨), 이재성(마인츠) 등 유럽과 핵심 자원이 등용됐다.

특히 주장 손흥민은 2014 브라질 월드컵과 2018 러시아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개인 통산 네 번째 월드컵 무대를 밟는다.

이번 명단에서는 새로운 얼굴들도 눈길을 끌었다. 측면 수비와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엔스 카스트로프(뮌헨글라트바흐)는 외국 태생 현역 선수 최초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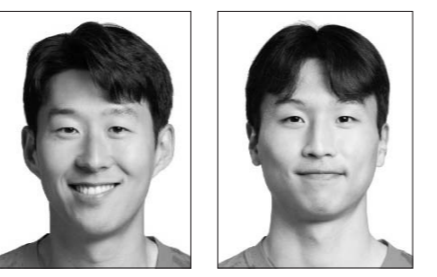
수비진에서는 이기혁(강원FC)의 발탁이 눈에 띈다. 이기혁은 2022 동아시안컵 홍콩전 이후 A매치 경험이 많지 않지만, 제공권과 수비 안정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손흥민

엄지성

홍명보호는 사전 캠프 기간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르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다. 한국시간으로 31일 오전 10시 트리니다드 토바고, 6월 4일 오전 10시 엘살바도르와 맞붙는다. 두 경기는 모두 솔트레이크 시티 브리검영대(BYU) 사우스 필드에서 열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손흥민 엄지성